

## [ 사회 ]



## 아우구스트 광장 가득 메워 “대~한민국”

지금 이곳은 라이프치히, 옛 동독 지역인 이곳은 베를린에서 남쪽으로 18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지는 않지만, 과테가 공부했고, 바흐와 멘델스존이 활동했으며, 독일 최초의 여성 촌리 앙겔라 베르크이 대학을 다닌 곳이다.

16일(현지시각) ‘붉은 악마’ 400여명이 이곳 라이프치히에 도착했다. 붉은 악마는 도착 직후부터 우리팀의 선전을 위한 거리응원 계획을 짜느라 머리를 쌔맸다. 붉은 악마와 라이프치히 한인 3천여명은 ‘게반트하우스’(Gewandhaus: 오페라 하우스) 앞 아우구스트 광장에 모여 우리팀을 응원하게 된다.

지난 13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국-토고전 때도 이곳에서 한바탕 응원전이 벌어졌다.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도 붉은 악마를 막지 못했다.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꽉찬 댄스를 주느라 온몸이 땀에 젖었지만 그마저도 기쁨이었다. 안정환이나 두 번째 골을 넣던 순간, 우리는 모두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숨막히는 역전극에 당시 그곳을 찾았던

## 나폴레옹軍 무너졌던 도시…佛과는 악연

## “라이프치히 대첩으로 16강 가자” 붉은 함성

외국인들과 독일인들도 “대~한민국” “오~필승 코리아”를 함께 외칠 정도였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의 승부를 앞두고 있다. 라이프치히는 프랑스와의 악연이 있는 곳이다. 1813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라이프치히에서 유럽 연합군을 상대로 집권 이후 최대의 전투를 치렀다. 1년 전 러시아 원정에서의 실패가 재 아물지도 않았는 듯, 프랑스군은 이곳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결국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귀양을 야기했다. 나는 현지 친구들에게 “프랑스가 라이프치히에서 또 다시 실패하면 (라이프치히) 완전히 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노답을 하기도 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지금 한국을 알리기 위한 행사들로 분주하다. ‘한누리 전통 연희단’이 17일과 18일

우리 가락 우리 춤을 선보일 예정이고, 바뀐도 시범단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한인 3천여명이 버스를 타고, 독일 각지에서 모여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외친다.

외국인에 배타적인 이 곳의 특성상, 이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국팀’에 별 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토고전 이후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독일보다 빠르고 힘이 넘치는 경기를 하는 팀이 한국”이라며 차기세운다. “프랑스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친구들도 “대등한 승부를 펼칠 것”이라며 한국팀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17일 오전, 아드보카트 감독과 23인의 태극전사가 라이프치히에 입성해 메리어트 호텔에 여장을 풀게 된다. 18일 새벽에는 경기가 열릴 젠트랄스타디움에서 그라운드 적응 훈련을 할 예정이다. 태극전사, 라이프치히 대첩! 16강행 확정’. 어젯밤 꿈에서 본 19일 일자 신문 헤드라인이다. 기분 좋은 꿈에서 깨 후, 이렇게 생각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김재준 통신원은 광주출신으로 한국예술 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라이프치히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주최 호남 예술제에서 1993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주자입니다.

## ■붉은 악마 뿐의 유래

## ‘전쟁의 신’ 치우천황의 뿔…‘환단고기’ 등 기록



이 도깨비는 ‘치우천황’(蚩尤天皇)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전쟁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전설적 인물. ‘치우’는 우리나라 역사책 ‘규원사화’(揆園史話)와 ‘환단고기’(桓檀古記)에 나온다.

이 책들에 따르면 ‘치우’는 배달(倍達)나라 제14대 천황으로 기원전 2707년에 즉위해 109년 동안 다스렸다. 무기류인 활·화살·창·갑옷·투구 같은 장비들을 만들어 중국 역사 삼황 중 한 명인 ‘신농씨’(神農氏)를 무찔렀다. 또 12개 나라를 손 아래에 뒀고 70여 차례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으며, 중국 오제 가운데 첫째인 ‘현원’(軒轅)을 확정해 제(黃帝)로 일컬기도 했다.

‘치우’는 중국 역사책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에는 한고조 유방이 자신을 폐공이라 하면서 ‘치우’에게 제사를 올리고 피로 복과 깃발을 붉게 칠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와 중국 한 소수민족의 신화에도 치우라는 이름은 임금으로 등장한다. 다만 우리나라 역사책과 다른 부분은 ‘치우’가 ‘황제 혼원’과 싸워 졌다는 대목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여 차례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으며, 중국 오제 가운데 첫째인 ‘현원’(軒轅)을 확정해 제(黃帝)로 일컬기도 했다. ‘치우’는 중국 역사책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에는 한고조 유방이 자신을 폐공이라 하면서 ‘치우’에게 제사를 올리고 피로 복과 깃발을 붉게 칠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와 중국 한 소수민족의 신화에도 치우라는 이름은 임금으로 등장한다. 다만 우리나라 역사책과 다른 부분은 ‘치우’가 ‘황제 혼원’과 싸워 졌다는 대목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모델 김수정씨가 제안한 길거리 응원 패션

## 자르고 도려내…‘야~하게, 빤티나게!’

‘야하게 그리고 빤티(?)나게!’ 인터넷 모델 김수정(24)씨가 제안하는 월드컵 응원 패션이다.

“우선 빨간색 티셔츠 목 부분을 ‘V’ 자 모양으로 깊게 판 위 팔은 8cm 길이로 짧게 잘라요. 옷 밑자락은 팽크톱처럼 가슴 가



/위직령기자 jrw@kwangju.co.kr

까이 바짝 옮겨 자르고 밑부분은 살짝 옮겨서 묶어줘요. 드레스처럼 가위질해 맨 살이 보이게 하면 됩니다.”

어깨와 쇄골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해 허리선을 강조한다는 것. 한국과 토고전이 열린 지난 12일 전남대 후문 응원 나운 그녀는 붉은 팬크톱에 바지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밀리터리룩 차림이었다. 월드컵 응원을 위해 손수 만든 옷이다.

165cm의 훌칠한 키에 섹시한 옷차림

을 한 그녀에게 ‘붉은 악마’들의 눈길이 쏠렸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그녀는 웨딩숍·클럽 등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델로도 활동중이다.

“19일 프랑스전에는 붉은 홀터넥(복

뒤에서 끈을 묶는 스타일)에 20cm 초미니 흰색치마를 입을 거예요. 마치 치어리더처럼요. 배꼽 주위에는 ‘태극기’를

그려넣을 거고요. 예쁘겠죠? 호호..”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바람둥이 남편 덕에 6억 횡재한 아내 이야기!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이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이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이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이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이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이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이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이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이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이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이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

300여개가 팔려나갔다”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물량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붉은 악마 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도깨비 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 도깨비는 팔이 여섯 개고 눈은 네 개이며 형체가 9×9 81명이나 된다. 또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사이에는 소뿔이 두 개 솟아 있고 소발굽도 달고 있다.